

울산 석유화학단지 복구작업 분주

SK 및 S-Oil, 50억-100억원 피해 ... 코오롱은 자체 발전장치로 대응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산업계는 추석연휴가 끝난 9월15일 일제히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 물량의 80%를 소화하는 부산항의 선적기능이 일부 마비돼 수출비중이 큰 기업들은 대체항 이용을 적극 검토중이며, 일부 산업단지는 해일로 공장시설에 바닷물이 들어와 시설복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여개 기업의 공장가동이 전면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업계는 신속한 복구작업 덕에 대부분의 시설이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울산 미포공단의 SK는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선로 정전으로 9월13일 오전부터 모든 공장의 가동이 전면중단됐으나 신속한 복구작업으로 15일 현재 대부분의 공장이 정상화됐다.

SK는 UC공정 등 일부 공정을 제외한 2개 중질유 분해공장과 4개의 정유공장 등 대부분의 공장이 13일 중 재가동됐으며 UC공정이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오전까지는 모든 공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K는 시설피해 등 물적손실은 경미한 수준이며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회손실 및 재가동 비용 등을 포함한 피해액이 50억-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1일 52만5000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S-Oil 온산공장도 12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정전돼 정유공장과 Xylene 센터 등 공장 9개가 완전히 멈춰섰다.

S-Oil은 긴급복구에 나서 15일 기준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장이 완전 정상화되려면 17일께나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S-Oil은 저유소에 보관중인 재고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섰으며 일부 수출 물량 지연 등에 따른 피해규모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여수산업단지의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P&B화학, 금호폴리켄 등 금호그룹 화학계열사와 LG석유화학 등도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가동모터가 물에 잠기면서 12일 오후 10시께부터 공장 가동이 일제히 중단됐으나 14일부터 모두 정상화됐다.

한편, 합성섬유업계는 정전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잠시 중단됐지만 자체 비상 발전장치를 이용해 재가동에 들어가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현재는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다.

코오롱은 12일 정전으로 경북지역 공장 일부 설비가 1시간여 중단돼 당시 생산되던 제품에 손상이 가는 등 일부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자체 비상 발전장치를 이용해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며, 현재는 설비수리가 거의 완료돼 정상가동되고 있다.

효성도 13일 정전으로 잠시 가동 중단됐던 설비들이 모두 복구완료 돼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09/15>